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업분석 | 2025.12.22



KOSPI | 소프트웨어와서비스

롯데이노베이트 (286940)

롯데그룹의 IT서비스 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상황

- 2024년 10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1)2028년까지 매출액 CAGR 10%, 2)신사업 매출 비중 20%, 3)배당성장 30% 이상 추진 4)지배 구조 핵심 지표 87% 준수를 통해 PBR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을 제시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상황
 - 1)2024년 매출액 성장률이 -1.4%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어 2025년 매출도 감소가 전망됨
 - 2)신사업 부문 불확실: 전기차 충전 사업 매출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의 성과도 미흡
 - 3)2024년 배당성향은 82.4%로 목표치를 크게 상회. 그러나 주당 배당금은 700원으로 2023년 1,000원 대비 감소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신뢰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
 - 1)롯데그룹 전반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통한 IT 투자 여력 회복
 - 2)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의 명확한 수익 모델 확립과 적자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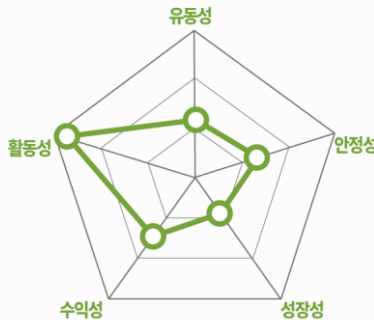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롯데이노베이트는 그룹의 AI 전환 기술 실행조직. 롯데그룹의 AI 전환은 롯데이노베이트가 AI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
- 롯데그룹 IT 투자 정체로 롯데이노베이트의 2025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7% 감소한 11,488억 원이 전망됨
- 데이터센터 가동을 개선, 전기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이브이시스의 적자 축소로 2025년 영업이익은 소폭 개선된 271억 원(yoy 5.3%)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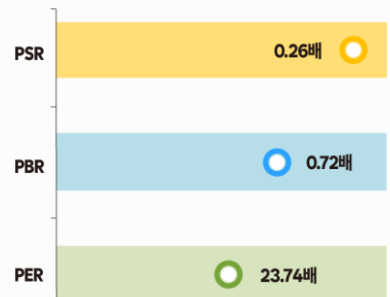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롯데이노베이트 (286940)

Analyst 김선호 shkim@kirs.or.kr

RA 이희경 hk.lee@kirs.or.kr

KOSPI

소프트웨어와서비스

롯데그룹의 IT 서비스 기업

롯데그룹의 시스템 구축과 IT 운영 전반을 담당. 2021년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 인수, 2022년 전기차 충전 전문회사 이브이시스 인수하며 사업 다각화.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비중 SM 18.3%, SI 74.8%, 전기차충전 6.8% 차지

롯데그룹 AX(인공지능 전환) 전략의 실질적인 기술 실행조직

롯데그룹은 위기 돌파와 체질 개선을 위해 AX를 게임 체인저로 정의. 롯데이노베이트는 AX의 실질적인 기술 실행조직으로 B2B 생성형 AI 플랫폼 '아이멤버'를 출시. 아이멤버 확산으로 라이선스 기반의 매출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및 시스템 통합으로 확장되는 파생 수익 기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황

2024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매출성장률을 핵심지표로 선정하고 2028년까지 매출 연평균 성장률 10% 제시. 그러나 2024년 매출액 성장률 -1.4%에 이어 2025년도 역성장도 전망됨.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롯데그룹 전반의 실적 턴어라운드와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의 수익 모델 확립이 필요한 상황

추가적인 하락 위험은 제한적

IT 서비스 산업의 성장 둔화와 자회사 부문의 적자 리스크를 반영하여 역사적 PBR 밴드 최하단에 위치. 리스크 완화가 주가 반등의 촉매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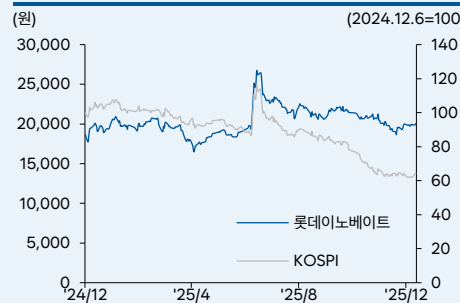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9,300	10,477	11,967	11,804	11,610
YoY(%)	9.5	12.7	14.2	-1.4	-1.6
영업이익(억원)	400	343	569	257	271
OP 마진(%)	4.3	3.3	4.8	2.2	2.3
지배주주순이익(억원)	347	305	420	128	227
EPS(원)	1,892	2,060	2,726	897	1,542
YoY(%)	16.0	-12.0	37.7	-69.0	78.0
PER(배)	19.1	11.4	10.7	21.6	13.0
PSR(배)	0.6	0.3	0.4	0.2	0.3
EV/EBITDA(배)	6.2	5.2	4.8	4.6	3.9
PBR(배)	1.3	0.9	1.1	0.7	0.7
ROE(%)	8.2	7.1	10.0	3.1	5.3
배당수익률(%)	1.9	3.0	3.4	3.6	3.5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2/18)	20,000원
52주 최고가	26,700원
52주 최저가	16,500원
KOSPI (12/18)	3,994.51p
자본금	770억원
시가총액	3,026억원
액면가	5,000원
발행주식수	15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2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4억원
외국인지분율	1.55%
주요주주	롯데지주 외 9인 66.18%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37	-190	0.5
상대주가	26	-398	-37.5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 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밸류업 공식 법안 주주가치 존중 기업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는 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며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



기업 개요

1 기업개요 및 사업영역

**롯데정보통신이 모태이며,
2017년 분할 설립**

롯데이노베이트의 전신은 롯데정보통신이다. 롯데그룹의 시스템 구축과 IT 운영 전반을 담당하기 위해 2017년 11월 분할 설립되었다. 설립 직후인 2018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2019년 7월에는 현대정보기술을 흡수합병하였다. 이후 전통적인 SI 사업을 넘어 메타버스, 인공지능(AI), 전기차 충전, 로봇 등 신사업 분야로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2024년 3월 사명을 롯데정보통신에서 롯데이노베이트로 변경하였다.

**3Q25 누적 매출비중
SM 18.3%, SI 74.8%,
전기차 충전 6.8%**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SM(System Management)사업, SI(System Integration)사업, 그리고 전기차 충전(EV-Charging)사업 등이다. 3Q25 누적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은 SM 18.3%, SI 74.8%, 전기차 충전 6.8%이며, 지역별 매출 비중은 한국 95.5%, 인도네시아 2.3%, 베트남 1.5%, 미국 0.6%로, 매출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1. SM

SM(System Management)은 고객 요청에 따라 기업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설비, 인력, 하드웨어 등을 위탁 운영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이다. SM사업의 매출액 대부분은 롯데그룹 계열사 전산 유지보수 실적으로 구성된다. 주요 매출처로는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칠성음료 등이 대표적이다.

2. SI

SI(System Integration)는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과 운영 전략을 기획하며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로는 시스템 설계, 하드웨어 선정에서 발주, 조달,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이 포함되며 최근 SI 부문 신규 사업으로 메타버스 및 AI 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다. AI 사업 일환으로 2023년 9월 빅데이터 플랫폼 '스마트리온'을 런칭했으며 2024년 1월 프라이빗 AI 플랫폼 '아이멤버(Aimember)'를 전계열사에 도입했다. 메타버스 사업은 자회사 칼리버스(CALIVERSE)를 통해 운영 중이며 트래픽 확보를 위해 엔터, 쇼핑 등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 콘텐츠를 준비 중이다.

3. 전기차 충전사업

전기차 충전사업은 2022년 1월 전기차 충전기 제조기업인 중앙제어(현 이브이시스) 지분 71.1%를 690억원에 인수하며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기차 충전사업은 충전기 제조 및 판매사업과 충전 서비스 운영 사업으로 구성된다. 연간 매출액은 2022년 489억 원에서 2024년 886억 원으로 확대되며 2개년 CAGR 34.6%의 고성장을 달성하였으며, 3Q25 누적으로는 632억 원을 기록하였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2년 -28억 원에서 2024년 -133억 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3Q25누적 기준 -67억 원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

4개의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충전기 제조시설(충주공장) 보유

동사는 총 4개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제1센터(서울 금천 UBIT센터)는 2007년 준공된 7,411m² 규모의 그린 데이터센터로, 9,250kW 수전용량과 6,000kW의 자가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다. 제2센터(대전 재해복구센터)는 서울과 약 150km 떨어진 위치에 있어 재난 발생 시 비즈니스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며, 4,000kW 수전용량과 5,000kW의 자체발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제3센터(용인)는 지형적 안정성과 보안성이 우수한 입지에 마련된 대규모 센터로, 주-예비선로 각각 20,000kW의 전력 이중화와 39,120kW 자체발전 용량을 갖추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제4센터(용인)는 2020년 준공된 최신 데이터센터로, 고전력 전산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변전소 이중화와 20,000kW 수전용량, 19,500kW의 비상발전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제4센터의 입주율은 2023년 51%에서 2024년 62%로 11%p 상승하였으며, 확보된 고객사를 기반으로 2025년 말에는 70% 이상으로 증가해 점진적으로 Full Capa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사는 데이터센터 외에도 전기차 충전기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자회사 이브이시스템의 청주 공장은 대지면적 13,170m²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와 홈네트워크 장비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브이시스템의 Smart Charger 사업부 가동률은 2022년 105.1%에서 2024년 39.2%까지 하락하였으며, Smart Control 사업부 역시 2022년 86.6%에서 2024년 44.3%까지 줄어들었다.

롯데이노베이트 연혁

1996 - 2005	2006 - 2011 The Best Value Partner	2012 - 2018 Biz. 포트폴리오 재편	2019 - 2022 신사업 성장 기대	2023 ~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1996 - 회사 설립(롯데정보통신) 1998 - 그룹 시스템 통합관리 2001 - 제1회 그룹 CIO 세미나 개최	 2007 - 통합 데이터센터 준공 - 그룹 통합포털 'MOIN' 출시 2010 - 재해복구센터 구축 -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2011 - 현대정보기술 인수	 2014 - 국제 에너지 표준경영시스템 ISO50001 인증 획득 2016 - 대한민국 SW기업 대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2017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 물적분할 추진 2018 - 대한민국 SW기업 대상 종합 대상 - 유가증권시장 상장	 2019 - 동반성장지수평가 우수기업 - 현대정보기술 합병 2020 - 자율주행 사업 추진 2021 - 글로벌 클라우드 센터 서비스 개시 - 칼리버스 인수 - 자율주행 운행허가 획득 2022 - 전기차 충전 전문회사, EVSIS 인수 - CES 2022 참가 - 강릉시 자율주행 실증사업 추진 - 대규모 차세대 PJT 수주	 2023 - CES2023 참가 - EVSIS 국내 충전사업자 1위 달성 2024 - CES2024 참가 (투모로우랜드 MOU) - 롯데이노베이트 사명 변경 - 자기주식 266,964주 소각 - EVSIS 북미시장 진출 - 시플랫폼(아이젠바) 롯데 그룹 도입 -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 오픈 -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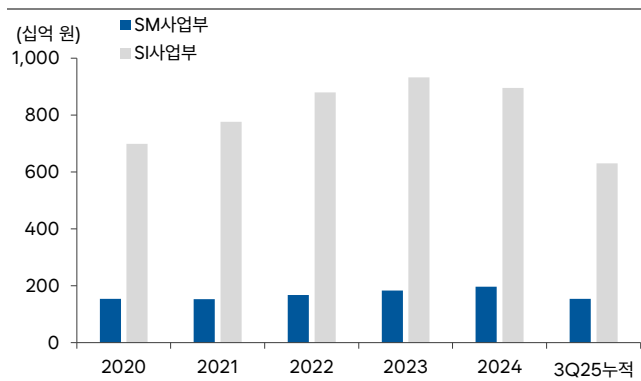
자료: 롯데이노베이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롯데이노베이트 데이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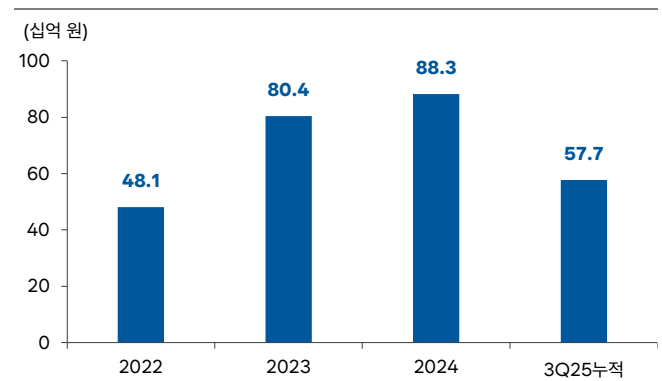
자료: 롯데이노베이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SM, SI사업부 매출액 추이



자료: 롯데이노베이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전기차 충전사업부 매출액 추이



자료: 롯데이노베이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 종속회사 및 주주현황

EV충전기 업체 이브이시스 포함

총 9개의 종속기업 보유

롯데이노베이트의 종속기업으로는 3Q25말 기준 총 9개의 비상장사가 있다. 해외에는 Lotte Innovate Vietnam Co., Ltd(베트남, 지분율 100%), PT. Lotte Innovate Indonesia(인도네시아, 지분율 100%), Lotte-HPT High Tech, Vietnam Company Limited(베트남, 지분율 100%) 등 해외 IT·SI 법인이 있으며, 국내에는 칼리버스(지분율 100%), 이브이시스(지분율 57.68%), 큐브리펀드(지분율 51%), 롯데핀테크펀드1호신기술투자조합(지분율 98.92%)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북미 지역에서는 금융 및 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LOTTE Innovate America Co.(미국, 지분율 100%)와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EVSIS America LLC(미국, 지분율 80.1%)를 보유하고 있으며, EVSIS America LLC는 LOTTE Innovate America의 종속기업이다.

한편, 이브이시스는 동사의 주요 종속기업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조명제어 및 빌딩제어 시스템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1,458억 원, 매출액은 886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33억 원으로 적자였다.

최대주주는 롯데지주로,
3Q25말 지분율은 66.1%

2025년 9월 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롯데지주로, 지분율은 66.1%이다. 롯데지주는 2017년 10월 1일 인적분할을 통해 기존 과자 및 코코아 제품 제조 사업을 신설회사인 롯데제과로 이전하며, 지주회사로 체제로 전환하였다. 현재는 자회사 관리 및 경영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22.7조, 매출액은 15.8조 원, 영업이익은 0.3조 원을 기록하였다.

우리사주조합의 보유 주식수는 104,549주로 지분율 0.69%에 불과해 전체 주식수 대비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종속회사(3Q25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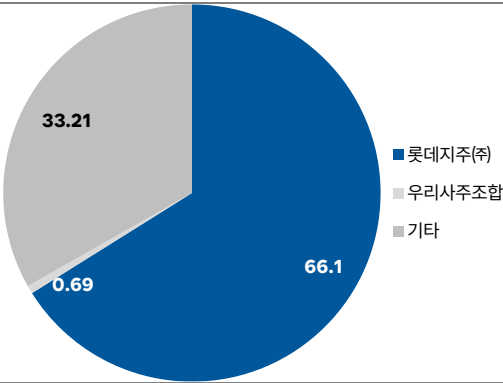
(단위: 억 원)

종속기업명	소재지	업종	매출액	영업손익	투자지분비율(%)		
					지배기업	종속기업	합계
Lotte Innovate Vietnam Co.,Ltd	베트남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137	-8	100	-	100
PT. Lotte Innovate Indonesia	인도네시아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199	12	100	-	100
Lotte-HPT High Tech. Vietnam Company Limited	베트남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14	1	100	-	100
(주)칼리버스	대한민국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4	-143	100	-	100
이브이시스(주)	대한민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	632	-67	57.68	-	57.68
롯데핀테크펀드 1 호신기술투자조합	대한민국	기타 금융 투자업	0	0	98.92	-	98.92
(주)큐브리펀드	대한민국	환급창구운영업	124	19	51	-	51
LOTTE Innovate America Co.	미국	기타 금융 투자업	55	-13	100	-	100
EVSIS America LLC	미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 등			-	80.1	80.1

자료: 롯데이노베이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EVSIS America LLC는 LOTTE Innovate America의 종속기업

주주현황(3Q25말 기준)



자료: 롯데이노베이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1 롯데그룹의 AX 추진 전략 및 성과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 AX

롯데그룹은 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를 단순한 신기술 도입 단계를 넘어, 그룹의 미래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생존 전략이자 최우선 경영 과제로 격상시켜 추진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VCM(Value Creation Meeting, 옛 사장단회의)과 신년사를 통해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거듭 역설하며, 전 계열사에 강도 높은 실행력을 주문했다. 특히 신 회장은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 수단이 아닌,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경쟁 우위를 창출할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정의하며 리더십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는 그룹 차원의 AI 추진체를 가동하고 유통, 화학, 식품, 호텔 등 전 사업 포트폴리오에 걸쳐 AI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AI 과제별 재무적 기대효과를 산정하고 KPI를 표준화해 목표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하는 거버넌스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그룹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는 하향식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AX 추진 배경: 위기 돌파와 체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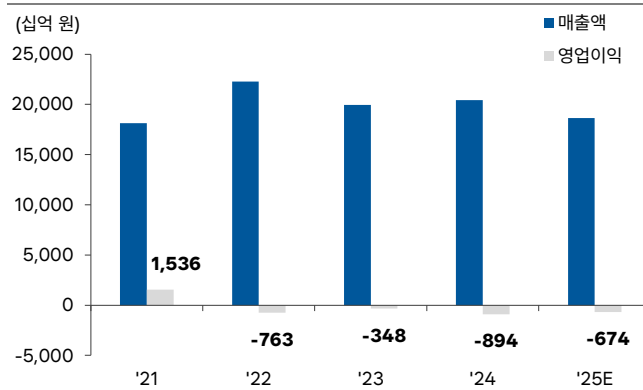
롯데그룹에게 있어 AX는 단순한 IT 기술의 도입이나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의 연장선이 아니다. 이는 노동 집약적 사업 구조를 기술 집약적 구조로 개편하고 그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전략적 판단에 기인한다.

무엇보다 그룹의 양대 현금 창출원인 롯데케미칼과 롯데쇼핑의 본원적 경쟁력 약화가 AX 전환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이다. 화학 부문은 중국의 석유화학 자급률 상승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수익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유통 부문은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의 시장 잠식과 중국발 커머스의 공세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신동빈 회장은 과거의 성공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며, AI를 통해 비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우선 경영 과제로 제시했다.

롯데그룹이 AX를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롯데그룹은 백화점, 마트, 호텔, 물류 등 대규모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 집약적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업무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업무 자동화가 필수적이다. 롯데는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도입을 통해 직원 1인당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유통 부문의 상품 진열 관리나 고객 응대, 화학 부문의 공정 안전 관리 등에 AI를 투입하여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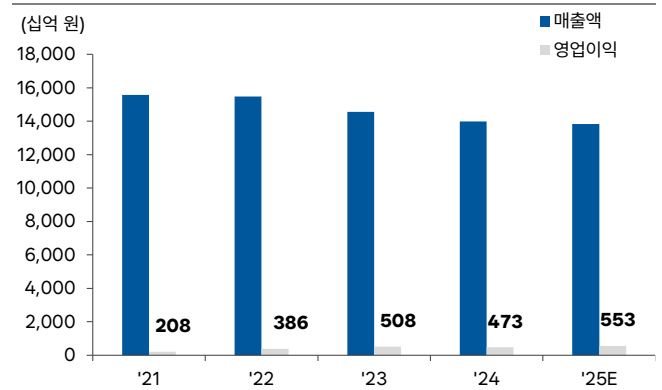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롯데그룹의 AX 전환은 저성장 국면 돌파, 인력 구조 변화 대응이라는 복합적인 경영 환경의 압박 속에서 도출된 필연적인 선택이다.

롯데케미칼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롯데케미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5년 실적은 fnguide 컨센서스

롯데쇼핑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롯데쇼핑,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5년 실적은 fnguide 컨센서스

롯데이노베이트:

실질적인 AX 기술 실행조직

AX 전략과 실행의 이원화

롯데그룹은 AX를 그룹의 핵심 전략 과제로 규정하되, 그 실행은 철저히 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가져가는 이원화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컨트롤타워(롯데지주 AI TF): 2023년 신설된 AI TF는 기술 개발보다는 그룹 차원의 로드맵 수립, 우선순위 결정, 기술·데이터 표준 마련 등 조율과 촉진에 집중한다.

기술 파트너(롯데이노베이트): 실질적인 기술 실행 조직이다. AI 모델 개발부터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며, 특히 그룹 공통 생성형 AI 플랫폼인 '아이멤버(Aimember)'를 제공하여 계열사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진입장벽을 낮췄다. 실행 주체(각 계열사): 초기에는 중앙 주도로 과제가 확산되었으나, 현재는 각 계열사가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AI를 도입하고 있다. 중앙은 플랫폼 제공자로 역할이 이동하고, 현장이 주도하는 단계로 고도화되었다.

밸류체인 전반의 AI 내재화

각 사업군은 자신의 산업 특성에 맞는 AX 과제를 발굴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1. 유통

유통 부문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와 고객 경험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유통 특화형 생성형 AI인 '라일락(LaiLAC)'을 중심으로 광고 제작 자동화 및 타겟 마케팅 등 디지털 혁신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전 사업 영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성과로는 품질 및 안전 관리, 그리고 물류 배송 최적화 분야에서의 AI 도입이 두드러진다.

먼저 신선식품 품질 관리 측면에서 롯데마트와 슈퍼는 수박, 참외 등 9개 품목에 AI 선별 기술을 적용하여 불량 상품 출고율을 획기적으로 낮췄으며, 삼겹살의 단면을 분석해 지방이 많은 상품을 선별하는 시스템도 운용 중이다. 안전 관리 분야에서는 롯데백화점이 CCTV 영상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는 AI 화재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 시설을 확충했다.

특히 물류 효율화 측면에서의 성과가 주목된다. 롯데마트와 롯데온은 KT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 70여 개 롯데마트 온라인 주문 배송 업무에 AI 운송 최적화 플랫폼인 리스포(LISFO)를 적용했다. 이 시스템은 배송기사에게 최적화된 운송 스케줄과 동선을 제공하며, 도입 결과 운송 거리는 최대 22%, 운행 시간은 최대 11% 절감되는 실질적인 운영 효율

개선을 달성했다.

아울러 고객 경험 부문에서 롯데e커머스(롯데온)는 AI 챗봇을 활용한 상담 자동화와 개인화 추천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있다.

2. 화학

화학 부문은 생산 효율성 증대와 원가 경쟁력 확보, 그리고 안전 관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AI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전략을 구체화하며 공정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 AI 기반 합성수지 컬러매칭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객이 원하는 미세한 플라스틱 색상 조합을 단시간에 정확히 찾아내고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 도입 이후 일일 생산성이 50%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엔지니어의 기술 역량 향상을 통해 공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한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AI 기반 인체 감지(사물 구분) 카메라를 도입하여 지게차 사고를 예방하는 등 디지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어 롯데정밀화학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린소재 제품의 배합 후 품질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하여 생산 계획의 정밀도를 높였다. 아울러 원재료인 면펄프 가격 예측 모델을 구축해 구매 협상력을 강화하였으며, 해당 성과는 그룹 전략회의(VCM)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롯데정밀화학은 품질 예측과 구매 최적화에 AI를 적용하여 본원적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3. 건설

건설 부문은 시공 품질 확보, 업무 효율화, 그리고 현장 안전 관리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현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현장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시범 적용 및 확산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ConGPT’는 AI 기반의 건설 시방서 질의응답 및 분석 플랫폼으로, 복잡한 시방서 질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특히 출원까지 완료했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도면상 단열재 누락을 자동 탐지하는 설계 도면 검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품질 관리의 정밀도를 높였다. 안전 관리 분야에서는 ‘위험성평가 AI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장별 위험 요인 분석과 붕괴 위험도를 가시화하고 있으며, 장비 충돌 방지 시스템에 인체 감지 기술을 적용하여 현장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했다.

4. 물류

물류 부문은 고객 서비스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송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능화와 자동화에 기반한 ‘스마트 물류’를 지향점으로 삼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주요 성과로는 2024년 하반기 도입된 ‘AI 컨택센터(AICC)’가 있다. 이를 통해 24시간 중단 없는 고객 상담 체계를 구축했으며, 도입 초기임에도 전체 인입 콜의 약 30%를 AI가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향후 기술 고도화를 통해 이 처리율을 8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운송 효율화 측면에서는 화물 적재함 이미지를 학습하여 적재 효율을 정밀 분석하고 최적 운송 경로를 산출하는 ‘용적률 판정 AI’를 개발했다. 아울러 외부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과 협력하여 화물차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등 미래 운송 기술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롯데그룹은 유통(신선식품 선별/마케팅), 화학(공정/품질 예측), 건설(설계 자동화/안전 모니터링), 물류(고

객 응대/적재 최적화) 등 각 산업의 핵심 밸류체인에 맞춰 AI 기술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리스크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다.



1 롯데 그룹의 AI 전환(AI)

롯데의 B2B AI 플랫폼 아이멤버

롯데이노베이트의 AI플랫폼 아이멤버

'아이멤버(Aimember)'는 롯데이노베이트가 자체 개발하여 2024년 정식 출시한 기업용(B2B) 생성형 AI 플랫폼이다. 'AI'와 'Member(구성원)'의 합성어로, AI를 동료처럼 활용하여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지향점을 갖는다. 보안이 취약한 퍼블릭 AI(Public AI, 예: ChatGPT)와 달리, 기업 내부의 폐쇄망 또는 보안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동되어 기업 데이터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다.

아이멤버의 기술적 차별점은 특정 모델에 종속되지 않는 유연성과 산업 특화 데이터에 기반한 높은 정확도로 요약된다. 오픈AI의 GPT-4, 메타의 Llama 등 다양한 대규모언어모델(LLM) 중 비용과 성능 면에서 최적의 모델을 선별하여 구동하는 멀티 LLM 오케스트레이션(Multi-LLM Orchestration) 기술이 적용되었다. 또한, 롯데그룹이 보유한 유통·화학·건설 등 이중 산업 데이터를 사전 학습(Pre-training)하여 범용 AI 대비 답변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사큐어 필터' 적용 및 온프레미스 구축 지원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시장의 핵심 요구사항인 데이터 보안 문제를 해결했다.

서비스 구성은 사용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운영된다. 일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멤버 챗(Chat)'은 문서 작성과 요약, 번역 등 사무 자동화를 지원하며, IT 개발 직군을 위한 '아이멤버 코딩(Coding)'은 코드 생성 및 디버깅 기능을 통해 개발 생산성을 제고한다. 나아가 개별 기업의 사내 규정이나 특화 데이터를 API로 연동하여 맞춤형 AI 환경을 구현하는 '아이멤버 커스텀(Custom)'을 제공함으로써,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선 전사적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기능한다.

특히 2025년 7월 공개된 아이멤버 3.0은 단순 질의응답 단계를 넘어, 자율 추론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AI 비서, AI 회의록, AI 보고서, 비전 스튜디오(이미지 생성 및 편집), 보이스 메이커(음성 생성 및 합성), 체크메이트(문서 점검 및 검토) 등 총 6종의 핵심 에이전트 서비스가 탑재되어, 업무 목적별로 특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아이멤버를 위시한 AI-데이터 융합 서비스 비중을 전체 매출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2025년 말 기준 고객사 300개 확보를 목표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이멤버 효과:

구독형 수익 모델

+ IT 서비스 사업 기회 확대

롯데그룹 AX가 롯데이노베이트에 미치는 영향

롯데그룹의 AX 가속화는 롯데이노베이트의 사업 기회 확대에 귀결된다. 그 경제적 효과는 자체 AI 솔루션인 '아이멤버(Aimember)' 확산에 따른 라이선스 기반의 직접 매출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및 시스템 통합(SI)으로 확장되는 파생 수익으로 구분된다.

가장 직접적인 수익원은 생성형 AI 플랫폼 '아이멤버'의 라이선스 매출이다. OpenAI의 ChatGPT나 Google의 Gemini 유료 구독 모델과 유사하게 월·연 단위의 구독료(Subscription)를 수취하거나, API 호출 및 토큰(Token) 사용

량에 기반한 종량제(Pay-per-use), 또는 기업별 통합 라이선스 계약 등 다양한 과금 체계 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공 수준에 따라 베이직(Basic)과 프리미엄(Premium)으로 등급을 세분화하여 객단가 상승을 유도하는 상품 다각화 전략도 유효하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국내 임직원 수는 약 8.6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탄탄한 내부 수요를 기반으로 대외 고객사 유치까지 본격화될 경우, 동사의 외형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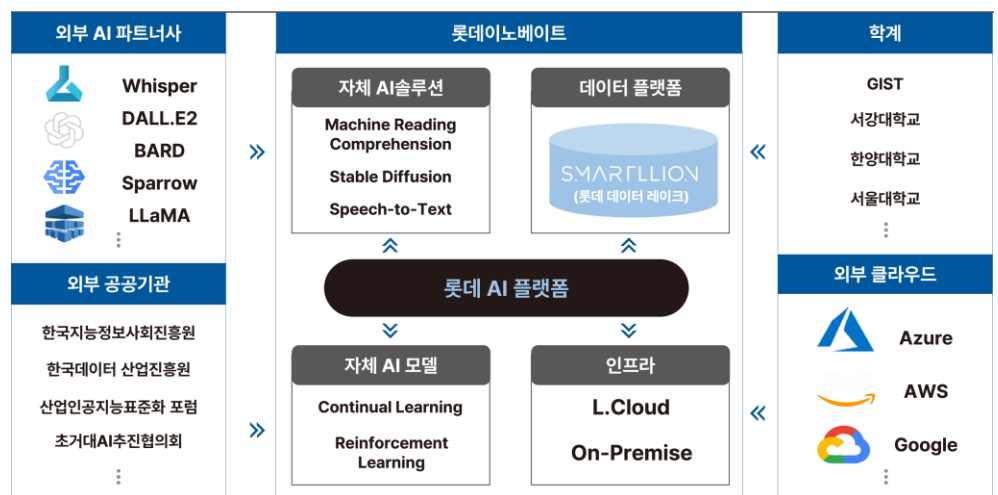
AX 전환은 단일 솔루션 도입에 그치지 않고, 기업 IT 환경 전반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므로 간접적인 파생 매출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기업별 특화 모델 구축 과정에서 커스터마이징(Customization) 수익이 발생한다. 범용 모델 적용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 규정 및 보안 문서를 학습시키는 파인 튜닝(Fine-tuning) 개발과 컨설팅 영역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안 민감도가 높은 금융 및 화학 계열사를 대상으로 망 분리 환경(On-premise)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지원하며 SI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기업의 AI 도입은 필연적으로 고성능 백엔드 인프라 수요로 귀결된다. AI 연산을 위한 GPU 서버 수요는 물론, 생성형 AI가 내부 데이터를 정확히 참조(RAG, 검색 증강 생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수집·전처리·저장 과정이 롯데이노베이트의 데이터센터와 스마트리온(데이터 플랫폼)의 매출로 이어진다.

종합해보면, 롯데이노베이트의 AX 추진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사업 모델의 확장을 의미한다. 향후 '아이멤버' 서비스가 그룹 내부를 넘어 대외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확산된다면, 이는 구독형 매출과 인프라 수익 창출로 직결된다. 이러한 성과가 가시화될 때, 기존 IT 서비스 기업에서 AI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며 기업 가치의 재평가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롯데이노베이트 AI 추진 생태계



자료: 롯데이노베이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점검 및 향후 전망

기업가치 제고 계획

- 1) 2028년까지 매출 CAGR 10%
- 2) 향후 신규사업 매출 비중 20%
- 3) 배당성향 30% 이상
- 4) 지배구조 핵심 지표 87% 준수

롯데이노베이트는 2024년 10월, 기업가치 제고(Value-up) 계획을 공시하며 시장의 저평가 해소 의지를 밝혔다. 동사는 본업인 IT 서비스의 수익성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전기차 충전, AI 등 신사업 매출 비중을 확대하여 PBR(주가순자산비율)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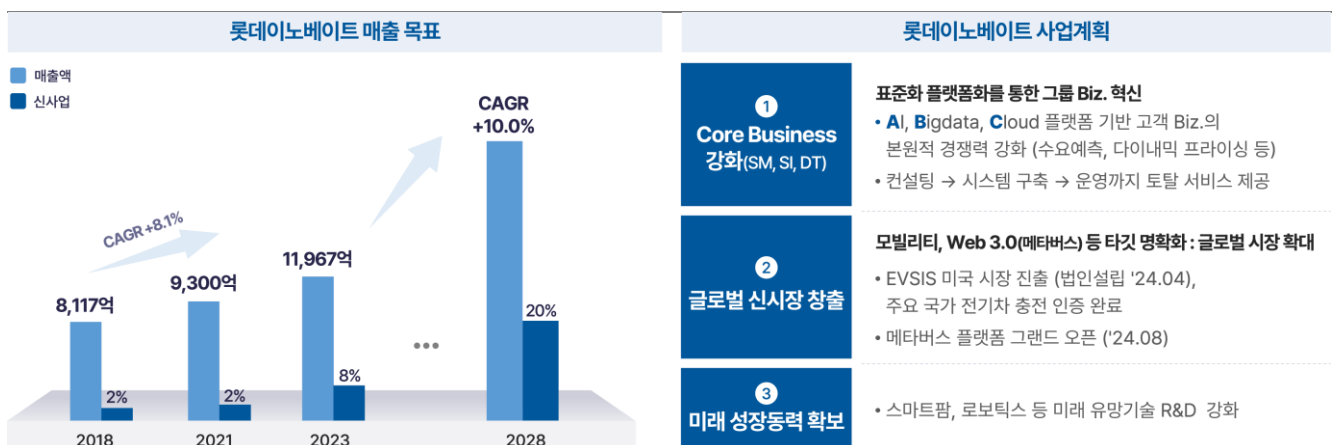
롯데이노베이트는 2028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CAGR) 10% 달성을 재무적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2023년 매출액 약 1.2조 원을 기준으로 2028년까지 약 1.9조 원 규모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사업(SM, SI, DT)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빌리티와 메타버스 등 신규 사업의 매출 비중을 전체의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주환원 정책 측면에서는 배당성향 30% 이상을 유지하고,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을 8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4 기업가치 제고 계획 목표



자료: 롯데이노베이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롯데이노베이트 매출 목표 및 주요 계획



자료: 롯데이노베이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회복이 우선 과제

그러나 계획 발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할 때, 전방 산업의 부진과 신사업의 수익화 지연으로 인해 2028년 중 장기 목표 달성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실적 흐름은 회사가 제시한 목표 경로를 이탈한 상태다. 2024년 매출액은 1조 1,8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역성장하며, 목표치인 연평균 성장률(CAGR) 10%를 크게 하회했다. 이러한 실적 부진은 2025년에도 이어져, 3분기 누적 매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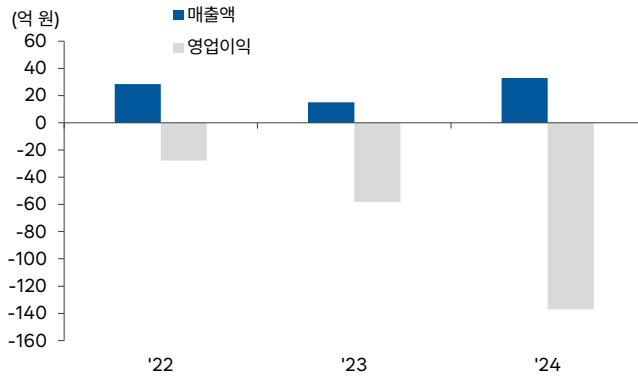
그룹사 차원의 AI 전환(AX) 추진이 잠재적인 매출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나, 주요 계열사의 강도 높은 긴축 경영 기조로 인해 전반적인 IT 투자 총량은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 재무 건전성 악화에 직면한 계열사들이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기존 IT 인프라 예산을 삭감하여 AX 재원을 마련하는 예산 재배분 형태의 보수적 집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AX가 전체 투자 파이를 키우는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연평균 10% 성장 목표 달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사업 부문의 성과 역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전기차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이브이시스(EVSIS)는 2024년 매출액 886억 원(yoy 10.2%)을 기록했으나,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 성장률은 1.4%로 둔화되었다. 이는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Chasm) 현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핵심 신사업인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는 2024년 8월 정식 서비스 개시 후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3.2% 성장한 54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매출 규모가 작고, 본격적인 수익 모델 부재로 영업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어 전사 실적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2024년 연결 기준 현금배당성향은 82.4%를 기록했다. 이는 회사 측이 제시한 목표치(30% 이상)와 2023년 배당성향(36%)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그러나 이는 주주환원 확대의 결과라기보다는 분모인 당기순이익이 급감함에 따라 나타난 착시 효과로 해석된다. 실제 주당 배당금(DPS)은 700원으로 전년 1,000원 대비 300원 감소했다. 2025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이익이 전망됨에 따라 절대적인 배당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 회사의 주주환원 의지보다는 본업의 수익성 악화가 더 부각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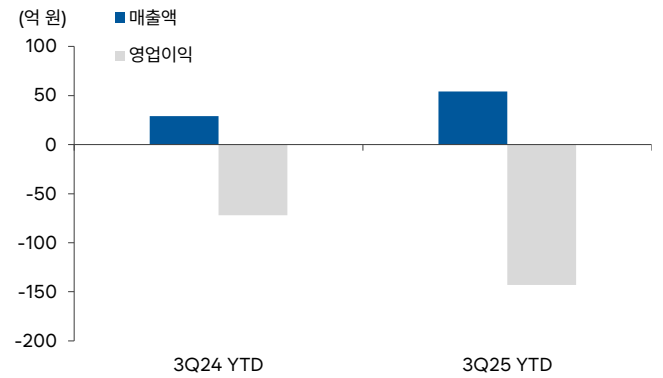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롯데이노베이트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롯데그룹 전반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통한 IT 투자 여력 회복이다. 둘째, 메타버스 사업인 칼리버스의 명확한 수익 모델 확립과 적자 축소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가시화될 때, 동사가 제시한 주주환원 정책과 성장 로드맵은 비로소 유의미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칼리버스 연간 영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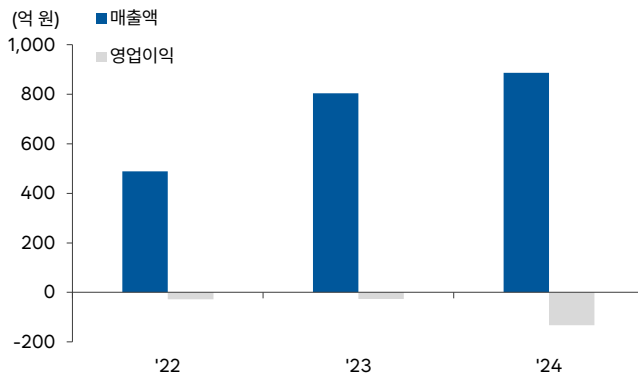
자료: 롯데이노베이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칼리버스 3Q25 영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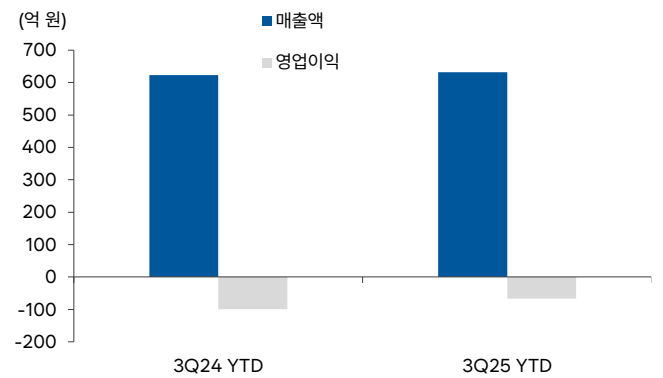
자료: 롯데이노베이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이브이시스 연간 영업실적



자료: 롯데이노베이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이브이시스 3Q25 영업실적



자료: 롯데이노베이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2024년 실적 점검****2024년****매출액 11,804억 원(yoy -1.4%)****영업이익 257억 원(yoy -55%)****2024년: 계열사 물량 감소와 자회사 손실 확대**

2024년 롯데이노베이트는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1,804억 원(yoy -1.4%), 영업이익 257억 원(yoy -54.8%)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2.2%로 전년 대비 2.6%p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본업인 IT 서비스 부문의 매출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신사업 자회사의 적자 폭 확대가 맞물리며 전사 이익 체력이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캡티브(Captive, 계열사) 고객사의 IT 투자 위축이 SI 부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SM 부문 매출은 1,966억 원(yoy +7.1%)으로 증가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으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SI 부문은 8,955억 원(yoy -4.0%)으로 감소했다. 이는 경기 침체 영향으로 그룹사들의 전반적인 설비 투자(CAPEX)가 지연되거나 축소된 탓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 매출액 또한 7,57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

영업이익의 급감은 신사업 자회사의 손실 확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메타버스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칼리버스는 2024년 8월 PC 버전 플랫폼을 정식 출시했다. 그러나 수익 모델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선행 비용 투입이 집중되며, 개별 기준¹ 연간 영업적자는 137억 원을 기록해 전년(58억 원) 대비 적자 폭이 대폭 확대되었다(칼리버스의 실적은 SI 부문에 합산 분류된다). 전기차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이브이시스(EVSIS) 역시 충전 시장 내 경쟁 심화와 전기차 수요 정체(Chasm)의 영향으로 개별 기준 영업적자가 133억 원을 기록, 전년(26억 원) 대비 손실이 크게 늘어났다.

2025년 실적 전망**2025년 전망****매출액 11,610억 원(yoy -1.6%)****영업이익 271억 원(yoy 5%)****2025년 3분기 누적 실적: 본업의 회복 지연과 신사업의 성장통 지속**

2025년 3분기 롯데이노베이트의 누적 실적은 본업의 회복 지연과 신사업의 초기 비용 부담이 맞물리며 정체된 흐름을 보였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8,431억 원(yoy -0.9%), 영업이익은 216억 원(yoy -6.5%)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2.6%로 전년 동기 대비 0.1%p 하락했다. 이는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그룹사 전반의 IT 투자 집행이 위축된 데 기인한다.

사업부별 매출은 유지보수 성격의 SM 부문 매출액이 1,547억 원(yoy 4.1%)으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프로젝트성 매출인 SI 사업은 신규 사업 투자 지연의 영향으로 6,307억 원(yoy -1.5%)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의 약 65% 비중을 차지하는 캡티브(Captive) 채널 매출은 5,4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며 정체된 흐름을 보였다. 이는 계열사들이 제한된 예산 내에서 AX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 기존 IT 인프라 예산을 축소하는 제로섬(Zero-sum) 형태의 자원 배분을 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AX 수요가 전체 IT 투자 총량의 확대에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 대체되는 양상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동률이 저조했던 제4데이터센터의 입주율이 전년 말 대비 8%p 상승한 70%까지 개선되며 실적

¹ 칼리버스와 이브이시스의 실적은 개별 기준으로 검토했다. 롯데이노베이트 연결기준으로 보면 칼리버스는 SI 사업에, 이브이시스의 실적은 전기차 충전부문에 포함된다.

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이다.

신사업 자회사들의 수익성 확보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메타버스 자회사 칼리버스는 2024년 8월 PC 버전에 이어 2025년 10월 VR 기기 전용 앱을 출시하며 플랫폼 확장을 시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익 모델(BM)이 부재한 상황에서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비용이 선집행됨에 따라 개별 기준 3분기 누적 영업적자가 143억 원으로 전년동기(72억 원) 대비 확대되었다. 전기차 충전 자회사 이브이시스(EVSIS)는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신규 운영지 확보 속도를 늦추는 등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며 영업적자 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개별 기준 3분기 누적 영업적자는 67억 원으로 전년동기(99억 원) 대비 실적이 개선되었다. 삼성물산의 영업망과 이브이시스의 제조 역량을 결합하여 진출한 미국 시장에서 3분기 누적 매출 약 50억 원(전년 동기 10억 원)을 달성하며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5년 4분기: 성수기 효과는 제한적

2025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3,179억 원(yoy -3.4%), 영업이익 55억 원(yoy 108.8%), 영업이익률 1.7%(전년 동기 대비 0.9%p 상승)이 전망된다. 이브이시스 적자 축소 영향으로 영업이익 개선이 예상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IT 서비스 사업의 매출 부진이 아쉽다.

3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1,239억 원으로, 통상 고객사의 잔여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4분기를 앞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3%, 전년 말 대비 21.1% 감소한 수치다. 공시된 수주잔고가 50억 원 이상 대형 프로젝트만을 집계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수주 절벽 현상은 업황 부진을 보여주는 명확한 선행 지표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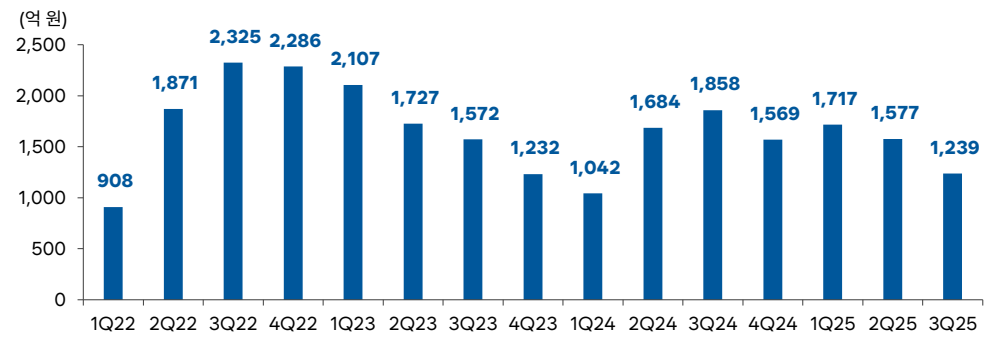
이에 프로젝트성 매출인 SI 사업 매출이 2,345억 원(yoy -8.0%)으로 감소하며 전사 매출 성장률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사업 자회사의 영업적자는 이브이시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 수주 건이 4분기부터 매출로 인식될 예정이며, 북미 지역의 수주 잔고 또한 3분기 매출을 상회하여 4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 매출 비중의 증가로 전사 손익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 사업을 영위하는 칼리버스는 VR 전용 앱 출시 등 서비스 확장으로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유의미한 트래픽 확보와 매출 발생이 지연되고 있어 영업적자 폭은 전 분기 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연간 전망

2025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11,610억 원(yoy -1.6%), 영업이익 271억 원(yoy 5.3%), 영업이익률 2.3%(전년 대비 0.1%p 상승)이 예상된다. 그룹사 매출이 정체된 가운데 신사업 부문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롯데이노베이트 수주잔고



자료: 롯데이노베이트,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롯데이노베이트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원)

구분	2024				2025				3Q24	3Q25	2021	2022	2023	2024	2025E
	1Q	2Q	3Q	4Q	1Q	2Q	3Q	4QE	YTD	YTD					
매출액	2,765	2,865	2,880	3,293	2,848	2,808	2,775	3,179	8,511	8,431	9,300	10,477	11,967	11,804	11,610
SM 부문(System Management, IT Outsourcing)	488	495	503	481	512	518	517	518	1,485	1,547	1,535	1,680	1,835	1,966	2,064
SI 부문(System Integration)	2,078	2,136	2,191	2,549	2,149	2,082	2,076	2,345	6,405	6,307	7,765	8,797	9,328	8,955	8,652
칼리버스	2	0	27	3	4	24	26	9	29	54	18	28	15	33	63
전기차충전부문	200	235	186	262	187	208	182	317	621	577			804	883	894
이브이시스	200	235	188	263	197	258	177	264	623	632	0	489	804	886	896
매출 비중															
SM 부문(System Management, IT Outsourcing)	18%	17%	17%	15%	18%	18%	19%	16%	17%	18%	17%	16%	15%	17%	17.8%
SI 부문(System Integration)	75%	75%	76%	77%	75%	74%	75%	74%	75%	75%	83%	84%	78%	76%	74.5%
전기차충전부문	7%	8%	6%	8%	7%	7%	7%	10%	7%	7%	0%	0%	7%	7%	7.7%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1,812	1,725	1,867	2,166	1,863	1,810	1,736		5,404	5,409	6,443	6,890	7,940	7,570	
% of 매출액	65.5%	60.2%	64.8%	65.8%	65.4%	64.5%	62.5%		63.5%	64.2%	69.3%	65.8%	66.3%	64.1%	
매출총이익	271	272	287	232	245	279	250		830	774	757	937	1,251	1,062	
SM 부문(System Management, IT Outsourcing)	106	104	132	69	136	142	149		342	428	418	391	407	410	
SI 부문(System Integration)	138	135	143	140	93	112	89		416	294	339	546	679	556	
전기차충전부문	27	33	12	23	16	26	12		72	53			165	96	
매출총이익률	10%	10%	10%	7%	9%	10%	9%		10%	9%	8%	9%	10%	9%	
SM 부문(System Management, IT Outsourcing)	22%	21%	26%	14%	27%	27%	29%		23%	28%	27%	23%	22%	21%	
SI 부문(System Integration)	7%	6%	7%	5%	4%	5%	4%		6%	5%	4%	6%	7.3%	6.2%	
전기차충전부문	13%	14%	7%	9%	8%	12%	6%		12%	9%			21%	11%	
영업이익	90	58	83	26	70	80	66	55	231	216	400	343	569	257	271
칼리버스	-31	-29	-11	-65	-65	-41	-37	-55	-72	-143	-13	-28	-58	-137	-198
이브이시스	-31	-27	-41	-34	-27	-6	-34	-4	-99	-67	0	-28	-26	-133	-71
영업이익률	3.2%	2.0%	2.9%	0.8%	2.4%	2.9%	2.4%	1.7%	2.7%	2.6%	4.3%	3.3%	4.8%	2.2%	2.3%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본격적인 반등을 위한 전제 조건들

주가 반등의 조건들

1) 롯데 그룹의 IT 투자 재개

2) 이브이시스 턴어라운드

3) 칼리버스의 수익화 모델 증명

롯데이노베이트는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PBR(주가순자산비율) 0.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동사의 PBR 밴드는 2021년 이후 통상적으로 0.7배에서 1.5배 사이의 박스권에서 형성되어 왔다. 현재 주가는 해당 밴드의 최하단에 위치해 있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추가적인 하락 위험은 제한적인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밴드 상단으로의 주가 회복을 위해서는 할인 요인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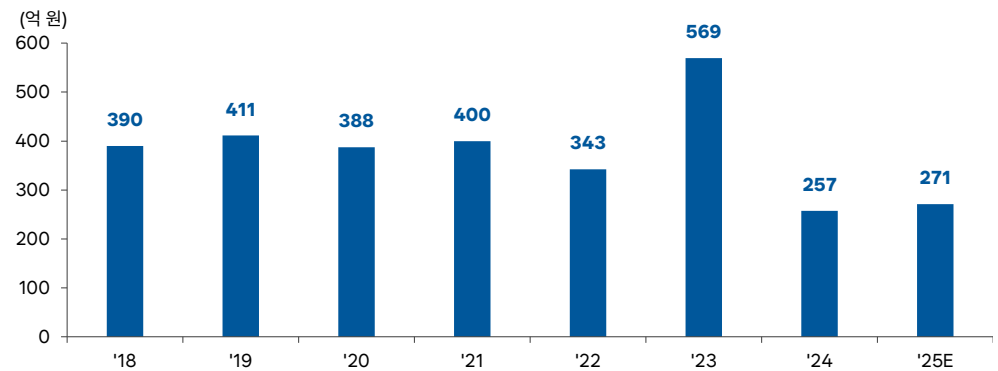
현재의 낮은 밸류에이션은 본업의 성장 정체를 반영한다. 롯데이노베이트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전체 매출의 약 65%를 차지하는 그룹사의 IT 투자가 활발했던 2023년을 정점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되었다. 그룹 전반의 업황 회복과 IT 투자 예산 증액이 본업 턴어라운드의 필수 조건이다.

본업이 정체된 가운데,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자회사들은 전사 이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상이하다.

- **칼리버스(메타버스):** 명확한 수익 모델 부재 속에서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24년 8월 PC 버전 출시에 이어 2025년 10월 VR 전용 앱을 출시하며 플랫폼 확장에 나섰으나, 연간 100억 원을 상회하는 영업적자를 기록 중이다. 단순한 가입자 수 증가를 넘어, 플랫폼 내에서 실질적인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료화 모델(BM)의 안착 여부가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 **이브이시스(전기차 충전):** 메타버스 사업과 달리 적자 폭을 축소하며 실적 개선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무리한 외형 확장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보수적인 수주 전략으로 선화하였으며, 마진율이 높은 제조(충전기 생산) 매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과의 협업을 통해 진출한 북미 시장에서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향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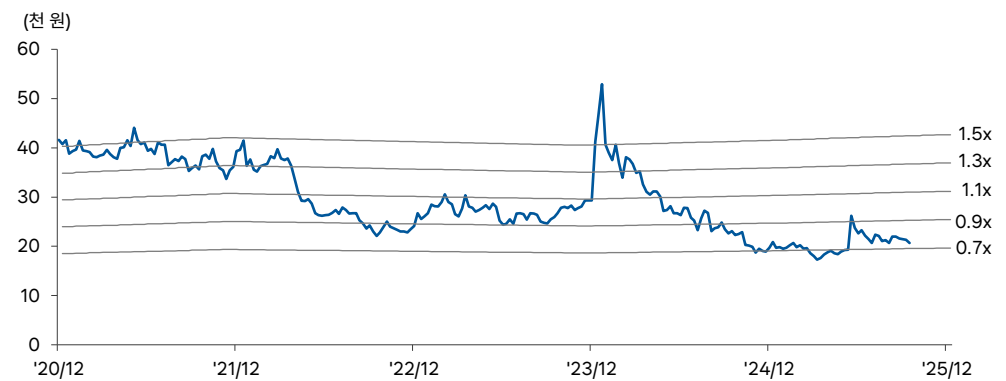
현재 롯데이노베이트의 주가는 IT 서비스 산업의 성장 둔화와 자회사 부문의 적자 리스크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PBR 0.7배는 부담 없는 가격대이나, 주가 상승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롯데그룹 전반의 업황 회복에 따른 IT 투자 재개, 이브이시스의 손익분기점(BEP) 근접, 칼리버스의 가시적인 수익화 모델 증명이라는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롯데이노베이트 영업이익 추이



자료: 롯데이노베이트,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5년 당 리서치센터 추정치

롯데이노베이트 역사적 PBR Band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동종업체 대비 낮은 ROE가 낮은 PBR로 연결

롯데이노베이트는 2025년 3분기 기준 Trailing PBR(주가순자산비율) 0.7배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비교 대상인 동종 업계(Peer Group) 평균 Trailing PBR 3.1배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비교 기업으로는 삼성SDS, 현대오토이버, LG CNS, 포스코DX, 신세계&C 등 국내 대기업 계열 SI 5개사를 선정했다. 삼성SDS 등 상위 3개사와는 자산 및 매출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나, 그룹사의 캡티브(Captive, 계열사 내부 시장) 물량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한다는 구조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비교군에 포함했다. 밸류에이션 지표는 포스코DX, 신세계&C 등 일부 기업의 시장 컨센서스 부재를 감안하여 Trailing PBR을 일괄 적용했다.

경쟁사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PBR 0.7배)의 주된 원인은 상대적으로 열위한 자본 효율성에서 기인한다.

- ROE 격차:** 지난 4년(2021~2024년)간 롯데이노베이트의 평균 ROE(자기자본이익률)는 7.1%로, 동종 업계 평균인 12.5%를 약 5.4%p 하회했다.
- 격차 심화:** 특히 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이 본격화된 2024년에는 경쟁사와의 ROE 격차가 9.6%p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수익성 악화가 밸류에이션 디레이팅(De-rating)의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롯데이노베이트는 업계 최저 수준의 ROE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장 낮은 PBR 배수를 적용받고 있다. 현재의 저평가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매출 증대를 넘어선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향후 캡티브 물량의 본격적인 확대와 신사업 자회사의 흑자 전환이 가시화되어 전사적 자본 효율성이 제고될 때, 경쟁사와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종업체 valuation

기업명	종가 (원)	시가총액 (전체) (억 원)	매출액(억 원)		영업이익(억 원)		ROE					P/B(배)	
			'24	'25E	'24	'25E	'21	'22	'23	'24	'25E	'24	Trailing PB
롯데이노베이트	20,000	3,026	11,804	11,610	257	271	8.2%	7.1%	10.0%	3.1%	5.3%	0.7	0.7
삼성에스디에스	169,900	131,465	138,282	140,813	9,111	9,728	8.8%	14.2%	8.2%	8.4%	8.2%	1.1	1.3
현대오토에버	257,500	70,617	37,136	41,692	2,244	2,600	7.3%	8.0%	9.0%	10.4%	10.9%	2.0	3.9
LG 씨엔에스	63,500	61,523	59,826	63,664	5,129	5,560	17.2%	17.2%	19.1%	18.3%	16.4%		2.2
포스코 DX	25,800	39,225	14,733		1,090		-3.9%	11.8%	21.1%	17.9%		5.5	6.8
신세계 I&C	17,440	2,438	6,257		370		13.3%	26.3%	8.2%	8.6%		0.5	0.5
동종업체 평균							8.5%	15.5%	13.1%	12.7%		2.3	3.0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5년 12월 18일 종가 기준 주2: 롯데이노베이트는 당 리서치센터 추정치, 삼성에스디에스, 현대오토에버, LG씨엔에스는 frnguide 컨센서스 활용

리스크 요인

1 매출비용과 투자 사이: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

초실감형으로 차별화된 메타버스

롯데이노베이트의 자회사 칼리버스(Caliverse)는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의 한계를 극복하고, 쇼핑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가장 큰 차별점은 그래픽 품질이다. 로블록스(Roblox)나 제페토(Zepeto) 등 기존 플랫폼이 만화 같은 아바타 위주의 저사양 그래픽을 채택한 것과 달리, 칼리버스는 세계적인 3D 창작 툴인 언리얼 엔진 5(Unreal Engine 5)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이를 통해 빛의 반사, 그림자, 인물의 피부 질감까지 표현하는 극사실적(Hyper-realistic) 그래픽을 구현하여 사용자의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수익 모델 및 확장 전략

온-오프라인 통합 커머스(O2O): 롯데면세점, 롯데하이마트 등 그룹 주요 계열사가 입점하여 실질적인 상거래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가상 공간에서 제품을 360도로 상세히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배송으로 이어진다. 단순 홍보를 넘어서는 메타버스 커머스 모델이다.

플랫폼 확장 및 경제 생태계: 2024년 8월 글로벌 서비스 개시(PC 버전)에 이어, 2025년 10월에는 VR(가상현실) 기기 전용 앱을 출시하며 플랫폼 접근성을 확장했다. 향후 가상 토지 및 건물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NFT 기술을 통해 사용자 창작 콘텐츠(UGC)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체류 시간 확대 전략: 단순 관람 형태의 메타버스가 갖는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요소를 강화했다. FPS(슈팅) 게임인 '칼리버스 인베이션' 등을 런칭하여 유저들의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리스크 요인: 수익화 검증과 집객(Traffic)의 불확실성

가중되는 재무적 부담 신사업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매출 발생을 선행함에 따라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본격적인 런칭이 이루어진 2024년 영업적자는 137억 원을 기록했으며, 서비스 고도화 및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는 2025년에는 영업적자가 198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통상적인 플랫폼 비즈니스가 초기 적자를 감내하며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는 J커브 성장 전략을 취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200억 원에 육박하는 적자는 전사 손익에 분명한 부담 요인이다.

핵심은 집객력(Traffic) 입증 결국 칼리버스 사업의 성패는 유의미한 규모의 활성 사용자(Active User)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회사는 쇼핑, 공연, 게임 등 다각적인 콘텐츠를 통해 모객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메타버스 산업 전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낮은 상황이다. 유저 확보에 실패할 경우 현재의 막대한 투자는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유의미한 트래픽을 창출하여 커머스 및 경제 생태계를 작동시킨다면, 현재의 적자는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재평가받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칼리버스의 트래픽 지표 추이가 롯데이노베이트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9,300	10,477	11,967	11,804	11,610
증가율(%)	9.5	12.7	14.2	-1.4	-1.6
매출원가	8,543	9,540	10,716	10,742	10,586
매출원가율(%)	91.9	91.1	89.5	91.0	91.2
매출총이익	757	937	1,251	1,062	1,024
매출이익률(%)	8.1	8.9	10.5	9.0	8.8
판매관리비	357	594	682	804	753
판매비율(%)	3.8	5.7	5.7	6.8	6.5
EBITDA	816	798	1,050	857	923
EBITDA 이익률(%)	8.8	7.6	8.8	7.3	8.0
증가율(%)	6.8	-2.2	31.5	-18.3	7.7
영업이익	400	343	569	257	271
영업이익률(%)	4.3	3.3	4.8	2.2	2.3
증가율(%)	3.1	-14.3	66.3	-54.8	5.3
영업외손익	44	20	-29	-90	-49
금융수익	6	90	37	45	40
금융비용	9	50	67	123	84
기타영업외손익	46	-20	1	-12	-6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443	363	540	167	222
증가율(%)	16.4	-18.2	49.0	-69.1	32.5
법인세비용	97	79	133	95	49
계속사업이익	347	284	407	72	172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347	284	407	72	172
당기순이익률(%)	3.7	2.7	3.4	0.6	1.5
증가율(%)	16.0	-18.1	43.5	-82.2	138.2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347	305	420	128	227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73	144	1,129	511	867
당기순이익	347	284	407	72	172
유형자산 상각비	337	348	367	466	482
무형자산 상각비	79	108	114	134	170
외환손익	0	11	3	1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34	-779	-34	-499	-6
기타	76	172	272	328	49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233	-1,009	-929	-784	-356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80	-25	-2	-6	0
유형자산의 감소	0	0	1	1	18
유형자산의 증가(CAPEX)	-373	-351	-817	-633	-404
기타	-680	-633	-111	-146	3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54	228	141	147	-226
차입금의 증가(감소)	996	0	289	346	-49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106	-106	-106	-151	-106
기타	-36	334	-42	-48	-71
기타현금흐름	1	-1	-2	15	-4
현금의증가(감소)	494	-637	340	-111	280
기초현금	973	1,467	830	1,170	1,058
기말현금	1,467	830	1,170	1,058	1,338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3,486	3,663	4,214	3,944	4,178
현금성자산	1,467	830	1,170	1,058	1,338
단기투자자산	92	117	142	205	203
매출채권	1,289	1,826	1,676	1,810	1,781
재고자산	82	366	381	289	284
기타유동자산	557	523	845	582	572
비유동자산	4,015	5,056	5,227	5,562	5,295
유형자산	2,913	3,035	3,530	3,783	3,687
무형자산	441	1,099	1,163	1,247	1,077
투자자산	181	244	214	180	179
기타비유동자산	480	678	320	352	352
자산총계	7,501	8,719	9,441	9,506	9,473
유동부채	2,109	2,778	3,513	3,094	3,204
단기차입금	0	67	140	90	140
매입채무	1,206	1,318	1,530	1,229	1,209
기타유동부채	903	1,393	1,843	1,775	1,855
비유동부채	1,060	1,402	1,417	1,914	1,705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1,000	900	866	1,318	1,118
기타비유동부채	60	502	551	596	587
부채총계	3,169	4,180	4,930	5,008	4,909
자배주주지분	4,332	4,249	4,172	4,194	4,315
자본금	770	770	770	756	756
자본잉여금	3,122	3,122	3,122	3,122	3,122
자본조정 등	-668	-907	-984	-971	-971
기타포괄이익누계액	4	0	-7	-0	-0
이익잉여금	1,104	1,264	1,271	1,286	1,407
자본총계	4,332	4,540	4,511	4,498	4,565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19.1	11.4	10.7	21.6	13.0
P/B(배)	1.3	0.9	1.1	0.7	0.7
P/S(배)	0.6	0.3	0.4	0.2	0.3
EV/EBITDA(배)	6.2	5.2	4.8	4.6	3.9
배당수익률(%)	1.9	3.0	3.4	3.6	3.5
EPS(원)	1,892	2,060	2,726	897	1,542
BPS(원)	28,136	27,597	27,098	27,718	28,521
SPS(원)	60,404	68,049	77,728	77,588	76,738
DPS(원)	700	700	1,000	700	700
수익성(%)					
ROE	8.2	7.1	10.0	3.1	5.3
ROA	5.0	3.5	4.5	0.8	1.8
ROIC	10.8	8.1	7.9	2.5	4.2
안정성(%)					
유동비율	165.3	131.8	120.0	127.5	130.4
부채비율	73.1	92.1	109.3	111.3	107.5
순차입금비율	-11.6	4.6	4.2	15.4	8.0
이자보상배율	62.7	8.1	10.2	3.0	3.8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3	1.3	1.3	1.2	1.2
매출채권회전율	8.0	6.7	6.8	6.8	6.5
재고자산회전율	86.1	46.8	32.0	35.2	40.5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롯데이노베이트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12.22	롯데이노베이트-롯데그룹의 IT서비스 기업
2024.11.22	롯데이노베이트-신규 사업 확대와 주주환원 정책 적극적으로 추진 중
2023.04.13	롯데정보통신-탄탄한 본업, 신사업 모멘텀,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가치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